표준논단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백점기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051-510-2429

우리는 오늘날 각종 상품의 국제간 교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구들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는 생필품에 이르기 까지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등 국제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허다하다. 이 같은 추세는 WTO체제 나아가서 최근의 FTA 체제의 활성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FTA 체제의 핵심은 각국이 가장 우월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자국 수요에 충당할 뿐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능력을 가진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종 상품에 대한 부품등의 국제적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부품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수리 교체가 어려울 뿐아니라 추가 비용손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소니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하였던 베타방식 비디오 테잎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VHF 방식으로 모두 통일된 경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국내시장은 물론이려니와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큰 세계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종 부품의 세계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품 제품을 설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첨단 기술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관련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제품의 생산에 따른 세계 표준을 다른 업체 또는 다른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 가격 및 생산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 표준이 타업체나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도중에 변경된다면 제품 생산설비의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로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업체나 나라의 기준에 항상 얽매여 경쟁력을 따라 잡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국내동향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술에 대한 세계 표준화를 주도하여야 함에 대한 당위성과 그 중요성을 범국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미 이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국 IT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지만 관련 제품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중요한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관련 제품 가격등의 세계표준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세계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제품가격을 선계하고 생산설비를 완성하여 본격적인 제품생산과 판매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표준을 주도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업체만의 역량만으로 수행해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범산업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힘을 합쳐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의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공동목표로 공동체로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기술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세계 표준화를 위한 구상과 계획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다양한 상품의 국제무역이 필수 불가결하고 무역규모가 바로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부의 척도임을 감안할 때 세계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함을 재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 기술표준 2008.11